北미사일 외교 '균형추' 잡기

한·중 외교장관 회동 의미·전망

北 6자 복귀 '외교 해법' 논의
中 '대북 영향력' 유지도 관건

26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중 외무장관 회담에서 반기문(왼쪽) 외교통상부장관이 리자오싱 중국 외교부장을 웃으며 반기고 있다. /연합뉴스

"미사일 위기 국면을 외교적으로 푸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뜻을 모았다는게 중요하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과 리자오싱(李肇星) 중국 외교부장간 26일 오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회동의 의미를 외교부 당국자는 이렇게 요약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유엔 대북 결의안 채택으로 고조된 한반도 긴장국면을 풀어나가자면 '강경대응'이 되풀이되는 악순환보다는 상황을 연착륙시키는 지혜를 발휘하는 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이라는 유용한 외교공간이 펼쳐진 상황에서 '중재자적 역할'을 해온 한국과 중국이 다른 양자회동에 앞서 뜻을 모은 모습을 과시하는 것은 다른 관련국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적지 않은 것으로 현지 외교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한국으로서는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대북 강경 드라이브 속에서 자칫 모멘텀을 잃기 쉬운 6자회담의 생명력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 때문에 반 장관이 쿠알라룸푸르에서 다른 누구보다 리 부장을 먼저 만나 '외교적 해법'에 뜻을 모은 것은 노무현 대통령 등 한국의 수뇌부가 나서 강경 제재 국면으로 흐르려는 국제정세의 균형을 잡으려는 노력을 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다시 말해 북한에 대한 추가적인 경제제재나 확산방지구상(PSI) 등을 미국과 일본이 추진한다는 관측이 잇따르고 있지만 북한을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수단을 갖고 있는 나라는 한국과 중국이며, 그런 점에서 양국의 회동은 균형추를 잡는 상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다.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까지 나서 '미사일을 발사하지 말라'고 권고했음에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상황에서 불쾌해진 중국 수뇌부지만 미·일이 주도하는 동아시아의 질서를 누구보다 껴리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북한의 외면'에 화가 난 중국 수뇌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채택과정에서 '수정안'을 제시하는 등 예상치 못한 적극성을 발휘하는 모습으로 대응했다. 북한에 상당한 압박을 가하게될 안보리 결의안이 전격적으로 통과된 것은 중국의 찬성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었다.

외교 소식통들은 "안보리 결의안 채택 과정을 보면 최근 중국과 북한 관계의 변화상을 엿볼 수 있다"면서 "특히 혈맹관계에 대한 강한 집념이 없는 중국 제4세대 지도부의 북한 인식이 어느 수준인지 가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할 경우 후진타오(胡錦濤)를 주축으로 한 현 중국 지도부가 북한 압박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얘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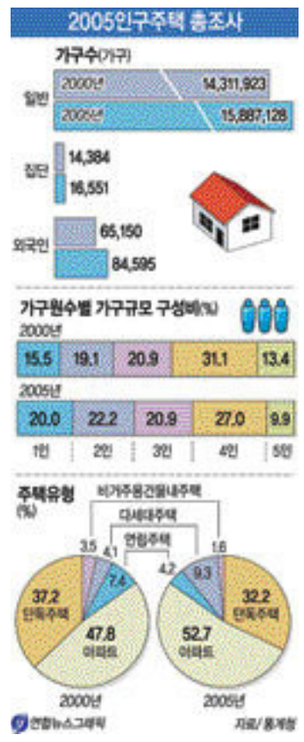
하지만 현 수준에서 중국은 여전히 '북한 설득'에 무게중심으로 두고 있다. 이날 반 장관과의 공식회담에 들어가기전 리 부장이 "북한이 6자에 나오는게 북한에도 좋고 한반도 정세에도 좋다"고 말한 것은 북한이 선호하는 방식에 중국이 동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풀이된다.

/최진만기자 man21@kwangju.co.kr

'나홀로 가구' 급증…'내집' 보유 늘어

■2005 인구주택총조사

전남 '내집' 보유 전국 최고
광주 아파트 비중 71% 달해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가구·주택부문)' 결과는 '나 홀로 가구' 급증으로 인한 핵가족화의 속도를 보여준다.

특히 가구 구성원이 1~2인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40%를 넘어선 가운데 5가구중 1가구는 '나홀로' 가구로 파악됐다. 또 1가구당 평균 가족수도 사상 처음으로 3명 밑으로 떨어지는 등 핵가족화가 심화되고 있다.

◇'나홀로 가구' 급증=2005년 현재 우리나라의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는 2.88명으로 나타났다. 평균 가족 수가 3명 이하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구당 평균 가족 수의 감소는 1~2인 가구의 급증과 연결된다. 1인 가구는 317만1천가구로 전체의 20%를 차지했다. 5가구중 1가구는 '독거 가구'라는 얘기다.

2인가구(352만1천명)까지 포함하면 전체의 42.2%로 부부와 자녀 1명으로 구성된 '핵가족' 마저 분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인 가구와 4인 가구는 각각 20.9%(332만5천가구), 27%(428만9천가구)로 나타났다. 반면 5인 가구는 122만2천가구로 15.3% 줄고 6인 가구는 26만7천명으로 22.6% 감소했다.

◇주거 여건 개선=국내 총주택수는 1천322만3천호로 15.3% 증가했다. 빈집은 21만5천 가구로 41.9% 늘었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696만3천호로 52.7%를 차지했다. 특히 광주는 아파트 비중이 70.9%에 달했고 울산 64.1%, 대전 63.8%, 서울 54.2% 등을 기록했다.

전남은 아파트가 32.1%(21만6천호)에 그친 반면 단독주택은 63.2%(42만4천가구)로 높게 나타났다.

단독주택은 426만4천호(32.2%)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다세대 122만9천호(9.3%), 연립 55만9천호(4.2%) 등이었다.

◇절반 이상 '내집' 보유=주택의 점유형태를 보면 자기집에 살고 있는 경우가 882만8천가구로 전체의 55.6%였다.

이는 2000년 775만3천가구보다 13.9%나 증가한 것이다. 전세는 355만7천가구로 12% 감소한데 비해 월세 가구는 301만2천가구로 42.5%나 증가했다.

광주는 '내집' 보유 가구가 53.6%(24만7천가구)를 차지한 가운데 전세 21.5%(9만9천가구), 월세 22.5%(10만3천가구) 등으로 나타났다.

전남은 '내집' 보유 가구가 69.5%(46만3천가구)로 전국 최고치를 기록한 반면 전세와 월세는 각각 14.6%(9만7천가구), 11.2%(7만5천가구)에 그쳤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靑 "노동운동 각성해야…"

청와대 브리핑 "대기업 노조 조직이기주의 답답해"

청와대는 26일 "노동운동은 조직화된 노동자의 이익이라는 좁은 밀실에서 빠져나와 전체 노동자와 사회 전체의 공익이라는 광장으로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청와대 브리핑에 올린 '노동운동 이제 달라져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사회정책수석실 명의의 글에서 "최근의 포스코 사태 등 일련의 노동쟁의를 지켜보며 몇 가지 생각할 점을 나누고자 한다"며 이같이 주장한 뒤 "노동운동을 각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노조지도부는 물론 그 상급단체 등까지 불법점거를 옹호하고 폭력시위에 가담하고 있고, 공권력이 말리면 호통까지 친다"며 "노동운동은 어떤 수단을 사용하더라도 옳다는 독선과 특권의식에 빠진 건 아닌지 되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지난날 독재정권에 대한 저항행위는 정당성과 순수성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어지간한 실수와 허물이 있어도 용납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반독재 민주화 투쟁시대가 아니다"며 "합법적 수단과 대화의 장이 열려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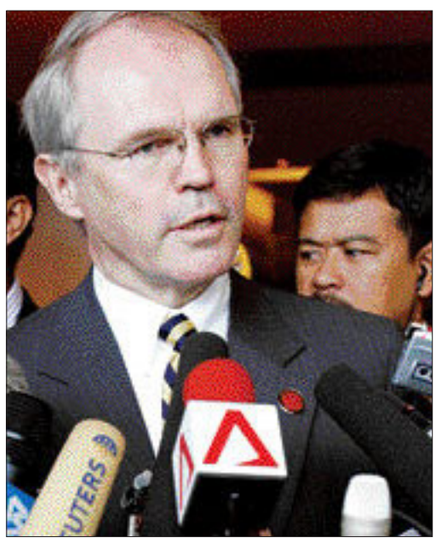
그러면서 "정통성을 가진 정부의 공권력 행사를 독재정권의 그것과 동일시하는 것은 한여름에 털 코트를 입은 것만큼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라고도 했다.

청와대는 "일부 대기업 노조들의 조직이기주의도 언제까지 계속될지 답답하다"며 "자신들의 임금인상과 파업행위가 비정규직 노동자, 하청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역주민과 국민경제 등엔 어떤 피해를 입히는지에 대해선 눈과 귀를 닫는다"고 비난했다.

청와대는 "'취직장사' 등 각종비리, 회의장 폭력 같이 노동운동의 대의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행태는 왜 근절되지 않을까. 노동운동이 보여줘야 할 도덕성, 사회적 책임성, 연대 정신은 어디로 갔느냐"고 거듭 반문하며 노동운동의 각성을 촉구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힐 "백남순에 줄 선물 없다"



아세안지역안보포럼에 참가하기 위해 26일 쿠알라룸푸르 공항에 도착한 힐 차관보가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北 6자회담 복귀가 우선"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는 25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과 백남순 북한 외무상간 회동 가능성에 언급, "북한이 6자 회담 참가국 회동에 참가한다면 어떤 것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ARF에 참석하기 위해 인천공항에서 대한항공 K671편에 탑승한 힐 차관보는 "백남순 외무상이 6자회담 참가국간 활동에 참가하는데 동의하느냐가 열쇠"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 정부가 6자회담에 복귀하려는 의지가 없다면 백 외무상과 대화하는 것은 가치가 없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ARF를 계기로 미국이 북한을 협상장에 유도하기 위해 카드를 제시할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을 일축하는 동시에 북한의 태도변화가 없을 경우 대북 압박을 강화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힐 차관보는 이어 "우리는 북한이 불법행위를 중단한다는 전제로 불법행위 문제에 대해 북측과 일할(work with) 용의가 있음을 북측에 누차 밝혔다"면서 "그러나 6자회담을 열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의 불법행위를 용납할 수는 없다는 것을 북한은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힐 차관보는 또 북한이 6자회의에 불참할 경우에 대비해 검토되고 있는 5자 회의에 대해 "6자회담의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인 만큼 누구도 6자 틀을 5자로 대체하는 데는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